

국제교류 수업 선도학교 사례 발표

전주자연초·근영중·고창북고 등 참여 설명회 열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3 국제교류 수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교류 수업 운영 학교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로, 국제교류 수업을 희망하는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국제교류 수업 지원 사업 안내 및 국제교류 공동수업, 국제교류 연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전주자연초, 전주근영중, 전주신흥고, 고창북고, 전북외국어고 등 5개교를 국제교류 수업 시범 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에 참여하는 국가는 뉴질랜드·일본·독일·호주·중국·프랑스·스페인 등 7개국이다.

이날 사례 발표에는 △뉴질랜드 케이스브룩 학교와 교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자연초 오영원 교사 △독일 하일라렌트하우스 및 일본 등과 유네스코 협력학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전주근영중 조은경 수석교사 △중국 친봉중학교와 언어문화체험 교류 수업을 하고 있는 고창북고 김미선 교사가 참여했다.

특히 해외 협력학교인 뉴질랜드 케이스브룩 인터미디어트 스쿨과 호주 퍼시픽 코스트 크리스찬 스쿨에서도 영상을 통해 사례 발표에 참여했다.

또, 김재영 교육혁신과장은 “국제교류 학생들과 국외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연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정혜영 교육혁신과장은 “국제교류 수업 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사례 중심의 안내를 통해 국제교류 수업 운영 방향을



24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3 국제교류 수업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고창북고 김미선 교사가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수립해 나가자고 마련된 시간"이라며 "12월 중 내년도 국제교류 수업 참여학교를 모집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학교나 교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 학교 재배치 심의 결정사항 설명

재배치 대상 중학교 선정, 차기 회의서 결정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향한 서거석 교육감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군산 교육거버넌스위원회의 학교재배치 심의안 결정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심의는 군산 관내 학교 재배치 필요성과 타당성, 적합 위치 및 대상 중학교 선정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중학교 이전은 디오션시티로, 고등학교 이전은 신역세권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재배치 대상 중학교 선정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신역세권 대표, 디오션시티 대표, 4개교 학교장, 군산상고 교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군산 디오션시티는 5,962세대로 유입 예상 학

생 수는 중학생이 912명, 고등학생이 635명이다. 또 신역세권에는 6,871세대로 중학생이 382명, 고등학생이 403명이다.

이와 함께 서권역의 군산중, 군산남중, 군산월명중, 군산산복중 등 4개 학교 중 이전 대상학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순위 결정 항목으로는 설문조사(연구용역), 신입생 1지망 선호도, 시설투자 현황, 원거리 통학 효과, 과밀학급 해소 효과, 이전 시 학생 배치 여건 등이 있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은 향후 추진 일정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12월 중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후 찬반 투표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후 내년 1월~4월 중 이전시설 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외국인 유학생들, 축구로 화합 다지기

전북대, 가을 체육대회 열어

전북대학교는 지난 22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가을 체육대회를 열고 축구를 통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에서 다양한 활동을 못했던 유학생들에 대학생활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선물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과 베트남, 네덜란드, 우즈베키스탄 A·B 그리고 연합팀까지 모두 6개팀 82명이 참가했다. 연합팀에는 캄보디아와 가봉, 르완다, 에티오피아, 인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유학생들이 참여했다.

경기는 조별리그를 거쳐 우즈베키스탄 A팀과 B팀이 나란히 결승에 올라 우즈베키스탄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승을 차지한 우즈베키스탄 히모브라킵존 학생(국제인문사회학부)은 “전북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전북대학교는 지난 22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가을 체육대회를 열고, 축구를 통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모인 여러 국가의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화합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유학생들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대학 측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회가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안문석 국제협력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반려동물 한지

수의·유골함 시제품 전달식

전주기전대학 Heal·being 농생명 IC는 지난 23일 반려동물 한지 수의 및 유골함 시제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한지 수의 및 유골함은 전주기전대학과 군장대학교가 LINC3.0 사업을 통해 기업과 연계해 공동 제작한 시제품으로, 각 대학 IC 특화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제작됐다.

제작된 시제품은 이날 (유)미래전주 반려동물 장례식당 이리움(대표 유명석)에 전달 신규 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산업체에 특별 전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기전대학 Heal·being 농생명 IC와 군장대학교 디지털문화예술 ICC는 지난 9월 22일 대학간 ICC 공유·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산학협력 연계망을 구축하며, ICC 특화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산학연계 교류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Heal·being 농생명 IC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특산품인 한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수의 및 유골함 만들기 문화 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미래교육 발전 연구 현장 중심으로

전북교육정책연구소, 기본·수시과제 등 13건 수행

현장연구팀 10팀 공모 교직원 연구역량 강화 방안 제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한숙경은 “전라북도 미래교육 발전과 정책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전북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북 초·중·고 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를 비롯해 기본과제·수시과제 등 1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교원과 일반직이 참여하는 현장연구팀 10팀을 공모해 교직원 연구역량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배부함으로써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 수립의 논

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전북 미래교육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도 모색했다.

한숙경 소장은 “지난 7월 서거석 교육감 취임과 함께 연구소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전북 미래교육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12월 20일 2022년 제11회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차보고회를 열어 올해 수행한 다양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해 교육 주체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원 미래역량 강화

오늘 교장·교감, 내달 2·9일 교사 대상 연수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전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실에서 2022 직업계고 교원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AI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직업계고 교장 및 교감 30명을 대상으로 도내 직업계고 교사들에게 산업 변화에 요구되는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 교육의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인공지능 소개(개념, 발전과정, 최신동향) △정책방향 및 인재양성 방안 △머신러닝(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소개 및 실습 △딥러닝(CNN, RNN, GAN) 소개 및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정은성 기자

강사진으로는 전주대 관련 학과 교수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와 함께 12월 2일과 9일에는 직업계고 교원을 대상으로 AI 연수도 실시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중 AI심화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이 먼저 강화돼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SW·AI 교육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해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자전거 타기 활성화·탄소중립 실천 자원 연계

전주대, 덕진자활센터와 협약

전주대학교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최근 예술관에서 덕진지역자활센터와 자전거 타기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폐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 자전거 대여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 연계 및 도내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해 발굴하고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해결해나가는 민·관·공 협업체제로, 새로운 지역사회 문제해결 모델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8월에 출범, 현재 15건의 의제가 실행 중이다.

한편 덕진지역자활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자전거 타기의 효과와 이점을 알리고 자전거 강사를 양성하고자 2022년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



전주대학교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최근 예술관에서 덕진지역자활센터와 자전거 타기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제 공모에 제안, 실행의제로 선정돼 활동하고 있다.

덕진지역자활센터 박준홍 센터장은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전거 타기 운동이 지역 문제해결 사

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한동승 집행위원장은 “도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자원 연계에도 힘을 쏟자”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24일 전주 캠퍼스 문화관 일원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지진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에 이어 건물 붕괴 상황을 대비한 피

난 유도 및 대피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신속한 초동 조치와 화재진압 등 대학 구성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은성 기자

송교원 사무처장은 “각종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훈련은 재난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학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글로벌디지털콘텐츠 중고왕과 산학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삼모)는 지난 23일 AI뉴테크실에서 (주)글로벌디지털콘텐츠 중고왕(대표 김태복)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김태복 대표이자, 이덕범 대외사업단장 임주성 대외사업단장, 김진희 기획팀 실장, 설남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본부장과,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최승훈 LINC3.0 사업단장, 전병관 산학팀장, 전은옥 현장실습센터 과장, 유세영 산학교내 이터, 심규현 뷰티·헬스케어기업협업 담당 등 양 기관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상호준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 인재에 대한 취



업 추천 및 현장실습 기회제공 △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플랫폼 등 취업연계와 관련된 제반 활동 협력에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주)글로벌디지털콘텐츠 중고왕은 중소기업과 개인구매자 간의 상호소통 부족을 해결하고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중고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